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고려 유물서 커피잔 원형을 보다”

고려 청동 찻잔 소견

차(茶)의 기원은 몇가지 이설(異說)이 있긴 하지만 기원전 고대 중국의 삼황(三皇) 중 한 분인 신농(神農)씨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불을 지피고, 농사를 시작한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왕이다. 어느 날 그가 나무 아래서 물을 끓여 마셨는데, 나뭇잎 시너 개가 주전자에 떨어져 우러난 물을 마셨는데 그 차맛에 감탄하여 계속 마셨다는 설이 있다.

또 하나는 신농씨가 수백가지 풀을 막다 독에 중독되어 정신을 잃고 어느 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다. 그 때 바람을 타고 푸른 잎사귀 하나가 신농의 입으로 떨어졌는데, 이 잎을 먹자 정신이 맑아지고 모든 독이 해독되었다. 그 잎이 바로 찻잎인 것이다.

또 다른 전설은 보리달마(菩提達磨)에 의한 것이다. 어느 날 그가 참선을 하던 중에 졸음을 쫓기 위해 우연히 찻잎을 씹어 먹었는데, 바로 정신이 맑아지



고려 청동 찻잔

덕왕 3년(828년)에 중국차가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는 “당나라에서 돌아온 사신 대렴(大廉)이 차 종자를 가져오자 왕이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지만 이때에 이르러 성하였다”고 적혀있다.

다성(茶聖)으로 알려진 조선 후기의 대선사(大禪師) 초의(草衣)는 한국의 다도의 대표 인물이다. 그가 다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시대부터 심었던 차나무 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차는 불교가 융성했을 때는 발전하다가 조선 시대에는 배불(排佛) 정책 때문에 시들해졌다.

우리의 차는 불교와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됐든 초의 사상은 다선일미(茶禪一味)사상으로 집약되는데 그의 사상은 차를 마시되 범희선열(法喜禪悅)을 맞본다는 것이다. 즉, 차 안에 부처님의 진리(法)와 명상(禪)의 기쁨이 다 녹아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승가서는 차보다는 커피를 더욱 즐겨한다. 중국의 보이차 등 가격이 폭등하고, 저질의 하품들이 고가로 진열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경제적인 비용과 저렴한 품질의 차를 마실 수 없었던 관계로 많은 스님들이 차를 포기하고 커피로 돌아섰다.

커피의 기원에도 많은 설화가 있지만 에티오피아의 고산서 살던 칼디라는 양치기가 염소들이 어떤 나무의 붉은 열매를 따먹고 흥겹게 뛰노는 것을 보고 따먹은 데에 유래한다고 하는데, 근처 이슬람 사원의 승려들이 잠을 쫓는 효능이 있는 것을 보고 많이 퍼졌다고 한다.

이 찻잔은 비록 거의 천년(千年)의 세월을 지나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특이하게도 커피잔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다. 물론 고려시대 당시에는 찻잔으로 쓰여졌을 이 잔이 커피잔의 원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척 신기한 일이다. 무엇을 마시며 수행할 것인가...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비상 꿈꾸는 청년의 참회와 성장 그려

영화 '미운오리새끼' 30일 개봉

20대 청년인 낙만은 가족이라는 숙명적 울타리와 거대한 공룡 같은 사회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한다. 그래서 자유롭고 싶은 낙만에게 가족은 무거운 족쇄고 권력자의 횡포가 난무하는 군대는 인정할 수 없는 부조리의 향연이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주인공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야 할까?

곽경택 감독의 열 번째 영화 '미운 오리 새끼'는 방위로 입대한 20대 청년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다. 군이라는 불합리한 세상에 방위병이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이 된 주인공 낙만의 군생활 6개월에는 20대 청년의 성장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영화 '미운 오리 새끼'는 곽 감독 데뷔작인 단편영화 '영장이야기'를 각색한 작품이다. 당시 영장이야기는 제2회 서울단편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유명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영화는 800만 관객을 사로잡은 '친구', 블록버스터를 표방했던 '태풍', 스타들이 주연을 맡았던 '똥개' '똥중' 등 기존 곽 감독 영화와는 차별화를 이룬다.

곽 감독이 심사위원으로 출현했던 '기적의 오디션' 프로젝트의 신인배우들을 대거 캐스팅했고 감독과 스태프도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영화에 참여했다. 스타 감독으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다.

곽 감독은 "영장이야기를 장편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투자를 받지 못했다. 기적의 오디션을 하면서 신인배우들의 열정을 보았고 촬영지로 영두에 두었던 군부대가 철거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뒤에 돌린 듯 이 영화를 찍자고 결심했다. 1주일 촬영비만으로 시작해 영화를 찍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돈이 없어 촬영을 중단



주인공에게 깨달음을 준 행자역의 문원주.



곽경택 감독의 열 번째 영화 '미운오리새끼'는 방위병 낙만(김준구 분)을 주인공으로 하는 성장 드라마다.

신인 배우 전격 캐스팅 눈길

곽경택 감독 경험담 영화화

방위병 시절 만난 행자 통해

삶의 지혜 얻는 계기 마련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사사회까지 열게 되니 정말 기적 같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누구나 미운오리새끼지만 또 누구나 백조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전직 사진기자 출신이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 줄을 놓아버린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를 버리고 미국으로 떠난 어머니. 주인공 낙만에게 아버지는 벗어나고 싶은 구질구질한 현실이고 어머니가 있는 미국은 이상향이자 천국이고 극락이다. 방위병으로 6개월만 견디면 그는 미국으로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했다. 그렇게 이발병으로 입대한 낙만은 사진찍기, 바둑 두기, 번소 청소는 물론 헌병을 대신한 영장근무까지

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1987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방위로 18개월 군생활을 했던 곽 감독의 경험담을 토대로 했다. 그리고 당시 만났던 행자라는 인물은 이 영화의 주제를 이끌어내는 주요 인물인 동시에 현실 속 감독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의 행자는 헌병대 영장에 들어와 자신의 죄값을 치른다. 그리고 그때 화장실 청소를 함께 했던 일화는 곽 감독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 영화의 한 장면이 되었다.

"당시 위생차가 화장실을 푸러면 장병들이 몰려 먹고 버린 비닐봉지들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때 꼬챙이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손에 통을 안 문혀려고 안간힘을 썼죠. 행자에게도 이 노하우를 전수해주려고 했는데 행자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손으로 쓰레기를 수족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손 씻으면 된다고 행자가 말할 때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행자의 이런 행동은 곽 감독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한다. 손을 씻겠다는 마

음으로 그냥 쓰레기를 빼내면 되는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며 상황을 겁내고 어렵게 만들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다. 이후 복잡한 일에 부딪히면 곽 감독은 행자와의 화장실 청소를 떠올린다고 한다. 그리고 그냥 해버리고 나중에 손을 씻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일이 풀리곤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이런 불교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다. 곽 감독은 전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지거 스님과 인연을 맺으며 복지관에서 6년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제 영화 속 주인공은 세상의 부조리와 가족의 현실과도 직면한다. 또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된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또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그렇다. 20대의 청년은 나중에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누구나 백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운오리새끼는 오늘도 날개를 파닥거리며 비상을 꿈꾸는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깨달음으로 가는 중생의 길 '타타가타'

부처님 일생 표현한 8곡 실어

불교명상음악 컬렉션 시리즈 음반 'Tatha-gata(타타가타)'가 콘텐츠 코리아에서 발매됐다. 타타가타는 '하나의 꽃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의 이파리에도 하나의 부처님이 계신다. 싹타르타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 또한 우리 모든 중생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앨범은 중국 최고 작곡가이자 상하이 음악원 교수인 하운진이 작곡하고 프로듀스한 기념비적 앨범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Path to Enlightenment)'이라는 타

이들을 불인 이 앨범은 '큰 깨달음(Great Enlightenment)'을 얻어 여래가 된 부처님 일생을 그리고 있다. 앨범은 티베트 음악을 중심으로 그레고리안 성가, 아랍음악

티베트음악 그레고리 성가 등

다양한 음악언어 펼쳐 보여

등 인류의 다양한 음악언어가 융합되어 있는 통섭(通涉)음악의 진수를 보여준다. 영국 'BBC라디오3 월드뮤직 어워드'에서 아테지역 최우수 가수상을 수상한 사딩딩(Sa Ding-ding), '제 7회 인디펜던트 뮤

직 어워드'의 월드퓨전부문 수상자이자 중국앨범 중 최초로 전세계 100만장 이상 판매기록을 가진 다다와(Dadawa)와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뮤지션들 100명 이상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불교를 상징하는 보리수 나뭇잎 그물모양 잎맥을 손으로 그린 표지가 인상적인 이 앨범은 2010년 그 래미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다.

타이틀 곡 'Heaven Outside of Heaven(天外天)'은 불교에서 말하는 끝없이 드넓은 거대한 우주공간인 대천세계(大千世界)를 묘사하고 있다. 'Heart of the Void(虚空之心)'은 사물에 걸리지 않는 마음을 뜻하며 동화적인 중창이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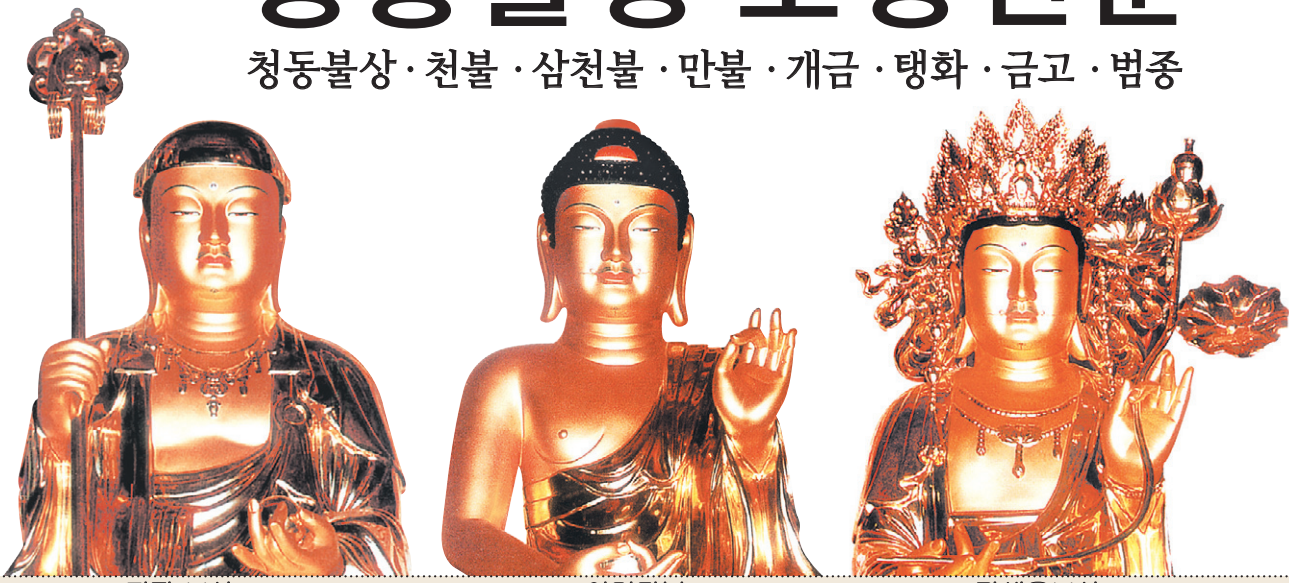


부처님 일생을 다룬 음반 '타타가타'

사딩딩과 다다와가 부르는 '타타가타(Tathagata)'는 신비한 천상의 목소리가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02)1661-3164 정혜숙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올먼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4 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파고다의 황금 빛 파노라마를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5일 (목,토요일 출발) 특가 899,000 (유류세 별도)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짜익티오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7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스님들 추천 상품

-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 ☐ 중국 지장도량 (구황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 12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인도성지순례 - 6명이상 출발 가능

- ☐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9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 ☐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8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 ☐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7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 ☐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6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 ☐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5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 ☐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4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 ☐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3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 ☐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2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 ☐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1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헤거합장